

안덕균 교수의

本草이야기 ⑤전호(前胡)



안 덕 균 교수
〈경희대 한의대〉

약간 습기가 있는 숲근처에서 많이 발견되는 전호는 내륙지방보다 특히 울릉도에 그 분포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전호는 감기를 다스리는데 불가결한 약물인데 우리나라에서의 사용 빈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약이 가짜라는데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전호는 당나라때의 명의별록에서부터 약용하기 시작하였는데 국내에서는 언제부터인지 잘못 쓰게되어 그 타성으로 인하여 위품을 분별없이 사용하고 있다.

전호는 같은 미나리과에 속해 있으면서 속(屬)이 전혀 달라서 우리가 쓰는것은 Anthriscus이고, 진품은 peucedanum속(屬)이다. 진품중에서도 꽃이 백색으로 피는 백화전호 P. praerupforum과 자색으로 피는 바디나물(자화전호) P. decursivum이 국내에서 굉장히 많은 양이 자라고 있는데 이를 약으로 쓰지않고 가짜를 쓰고 있는 실정이다. 가짜는 안쓰는것만 못하고 때로 부작용을 나타낸다. 지금껏 써 왔던 전호는 아삼(峨參)으로 약효성분과 효능이 전혀달라 상호비교가 불가능할 정도이다.

진품전호는 맛이 쓰고 약성으로 약간 찬편인데 아삼은 달고 쓰며 온화한 성질을 갖

라앉힌다. 그리고 외감성질환에 자주 쓰이는 것은 이 약으로 감기로 열이 나는 것을 제거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삼은 비위장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면서 기운을

약명	전호	아삼(바디나물)
기미	미한, 약간 쓰고 달다	미온, 달고 약간 맵다
귀경	폐	비위 폐
형태	원주형, 원주형으로 약간 만곡되어 있으며 흑 가지가 있기도 하다. 길이는 3~9cm 직경 1~1.5cm로 길면은 황갈색 또는 회황색이다. 뿌리의 윗쪽은 줄기가 있던 흔적이 있고 상단에는 잔주름이 밀생하고 여러개의 흑색 사마귀 같은 것이 볼거져 나와 있다. 아랫쪽은 길이로 뾰은 주름이 있고 수염뿌리가 있던 흔적으로 보인다. 질은 비교적 부드럽고 쉽게 잘라진다. 잘린 면은 거칠고 주변은 유백색이 돌고 안쪽은 황갈색이다.	원주형으로 길이 3~7cm, 중심부는 거칠고 폭이 1~2cm이다. 윗부분에는 줄기의 흔적이 있고 옆면은 작은 돌기가 나와 있으며 꼬리부분은 매우 가늘다. 겉면은 황갈색 또는 회갈색이며 거친 문리가 현저하다. 실질은 무겁고 단단하며 잘라진 면은 황색 혹은 황갈색이며 육질의 가는 문리가 보인다.
용량	1회 6~10g	3~5g
사용상 주의	음허해서 일어난 발열성 기침과 몸이 차면서 해소 전식을 할때는 금한다.	감기로 열이 심하고 기침을 할때는 쓰지 않는다.



◇전호

고 있다. 아삼의 귀경은 비위경과 폐경인데 전호는 오로지 폐경에 작용하여 호흡기 질환을 다스린다.

그러므로 효능상에서 전호는 기운을 아래로 내려주면서 가래를 삭히는 효능이 있으므로 폐나 기관지벽에 접착되어 있는 끈끈한 가래를 밖으로 쉽게 배출시키면서 기침을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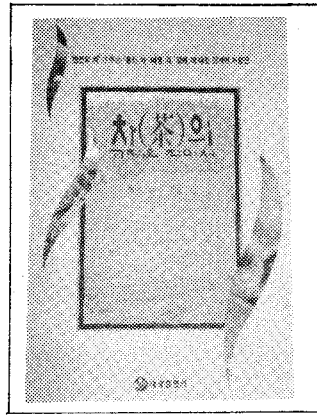
◇바디나물

증강시키고 식욕을 나게하여 사람의 원기회복에도 관여하게 된다. 그뿐 아니라 사지의 무력감으로 활동하기가 어렵고 폐가 약해서 해소전식을 일으키거나 노인의 야뇨증과 이뇨작용에 탁월하여, 신체부종에도 활용된다.

〈본 협회 생약연구위원〉

새로나온 책

「차(茶)의 고향을 찾아서」



「한잔의 차」가 주는 '문화'와 '여행'과 '질병'에 대한 명쾌한 처방전을 담은 『차(茶)의 고향을 찾아서』(저자 연호택교수)가 대광출판사에서 출간됐다.

『차의 고향을 찾아서』는, 지은이가 지난 92년 5월1일부터 94년 8월4일까지 중앙일보에 연재했던 우리차와 산하, 그리고 우리마음이 담긴 차에세이 '차가 있는 고향'을 한군데 모아 엮은 것으로, 우리차에 얽힌 이런저런 이야기 꺼리를 기행에세이 형식으로 소개하고 있다.

강릉의 감잎차로 시작해서 화엄사의 생강차, 불면을 다스리는 영암단지 호박차, 눈빛처럼 하얀향기 치자꽃차 등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차의 종류는 약70여 가지에 이른다.

작가는 또 이 책에서 생활속의 차(茶)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차(茶)생활의 아름답고 편한 점, 우리차(茶)의 좋은 약효, 우리 산하의 이모저모 등을 찾아내 알림으로서 독자들에게 「왜 차를 마시는 일이 필요한가」를 얘기하고 있다.

서구문명의 유입으로 커피나 탄산음료가 우리의 기호식품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의 무관심으로 숨어있기 만한 우리차의 좋은 점과 효능을 소개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우리 고향의 푸근함

을 전해줄 『차(茶)...』에는 차 거리를 구하는 즐거움, 손수 만드는 재미, 차 끓이는 행복이 책장마다 가득하다.

발행 : 대광출판사, 저자 : 연호택 교수, 정가 : 6천원

농진청 발간 「약초재배」

당귀 천마 작약 등 36종의 약용작물에 대한 품종특성과 재배기술, 품질관리 등이 수록된 『약초재배』 책자가 발간됐다.

지난달 31일 농촌진흥청이 발간한 『약초재배』 책자는 작물시험장이 영·호남 작물시험장과 각도 농촌진흥원에서 현재까지 연구축적된 기술을 모아 집대성한 교본이다. 농촌진흥청은 이 책자가 약용작물에 대한 시험연구를 토대로 만든 것으로 최근 농가 고소득 작목으로 주목받고 있는 약용작물에 대한 품질 고급화와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 꼭 필요한 재배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책자는 농촌지도소등에 가면 볼 수 있다.

문화 단신

생활문화 기행 개최 「토종을 찾아서」

「토종을 찾아서」란 주제로 제4회 생활문화기행이 오는 10월1일, 2일 1박2일동안 개최된다.

민족생활문화연구소(소장 이기연)가 주최, 우리 것의 우수성을 알리고 연구 보급하기 위해 열리는 생활문화기행은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어답산 송내준옹의 '토종농장' 등을 돌아볼 예정이다.

한라문화제 개최

제주도는 제33회 한라문화제를 10월1~7일까지 1주일간 도내 일원에서 개최기로 했다.

이번 한라문화제 행사 주제는 「느영나영 둥그데 당실, 제주 문화 큰잔치」이다.

(祝)

發

展

법사인단 한국생약협회

충청북도지부

지부장 이지대 (중앙이사)

단양군 사무소장 장지홍 (중앙이사)

괴산군 이임재 석

제천시 이광우 (도공판장장겸직)

제천시 이광우

보은군 황상경

영동군 김운호

음성군 연기흠

옥천군 이지성

충주시 이광우

청원군 신필구

청주시 청주시서부 채화식

중원군 심철수

단양군 신상섭

청주시 청주시 공판장장 남기욱

1994년 10월 1일